제5과목: 경제학원론

101. A국의 2018년 국민소득계정의 일부이다. 다음 자료에서 실질국민총소득(실질GNI)은 얼마인가?

○ 실질국내총생산(실질GDP): 1,500조 원 ○ 교역조건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 60조 원 ○ 실질대외순수취 요소소득: 10조 원

① 1,430조 원 ② 1,450조 원 ③ 1,500조 원 ④ 1,550조 원 ⑤ 1,570조 원

102. 물가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② 디플레이션은 명목임금의 하방경직성이 있는 경우, 실질임금을 상승시킨다.

③ 총수요의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다.

④ 예상한 인플레이션(expected inflation)의 경우에는 메뉴비용(menu cost)이 발생하지 않는다.

⑤ 디플레이션은 기업 명목부채의 실질 상환부담을 증가시킨다.

103.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키고자 한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공개시장조작을 통하여 국채를 ( )한다. ○ 법정지급준비율을 ( )한다. ○ 재할인율을 ( )한다.

① 매입 - 인하 - 인하 ② 매입 - 인하 - 인상 ③ 매입 - 인상 - 인하

④ 매각 - 인상 - 인상 ⑤ 매각 - 인상 - 인하

104. 다음 중 총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산효과: 물가수준이 하락하면 자산의 실질가치가 상승하여 소비지출이 증가한다. ㄴ. 이자율효과: 물가수준이 하락하면 이자율이 하락하여 투자지출이 증가한다. ㄷ. 환율효과: 물가수준이 하락하면 자국 화폐의 상대가치가 하락하여 순수출이 증가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05. **총공급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가 상승 시 단기 총공급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② 인적자본이 증가하여도 장기 총공급곡선은 이동하지 않는다.

③ 생산성이 증가하면 단기 총공급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④ 모든 가격이 신축적이면 물가가 하락하여도 장기에는 총산출량이 불변이다.

⑤ 고용주가 부담하는 의료보험료가 상승하면 단기 총공급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106. **적응적 기대가설 하에서 필립스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기 필립스곡선은 총수요 확장정책이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② 단기 필립스곡선은 희생률(sacrifice ratio) 개념이 성립함을 의미한다.

③ 단기 필립스곡선은 본래 임금 상승률과 실업률 사이의 관계에 기초한 것이다.

④ 밀턴 프리드만(M. Friedman)에 의하면 필립스곡선은 장기에 우하향한다.

⑤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 단기 필립스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107. **D국 경제의 총생산함수 $Y=AK^{\frac{1}{3}}L^{\frac{2}{3}}$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Y는 총생산량, A는 총요소생산성, K는 자본, L은 노동을 나타낸다.)**

① 총생산량에 대한 노동탄력성은 $\frac{2}{3}$이다.

② 기술이 진보하면 총요소생산성(A)이 증가한다.

③ 총생산함수는 규모에 따른 수확체감을 나타내고 있다.

④ 경제성장률은 총요소생산성(A)의 증가율과 투입물(L, K)의 증가율로 결정된다.

⑤ 노동소득분배율은 $\frac{2}{3}$이다.

108. **A국은 자본이동 및 무역거래가 완전히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경제이다. A국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따른 최종 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물가는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IS-LM-BP 모형에 의한다.)**

① 고정환율제에서 확장적 재정정책과 확장적 통화정책 모두 국민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② 고정환율제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국민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없지만, 확장적 통화정책은 효과가 있다.

③ 고정환율제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국민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확장적 통화정책은 효과가 없다.

④ 변동환율제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국민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확장적 통화정책은 효과가 없다.

⑤ 변동환율제에서 확장적 재정정책과 확장적 통화정책 모두 국민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없다.

109. A국의 2018년 국제수지표의 일부 항목이다. 다음 표에서 경상수지는 얼마인가?

○ 상품수지: 54억 달러	○ 서비스수지: -17억 달러
○ 본원소득수지: 3억 달러	○ 이전소득수지: -5억 달러
○ 직접투자: 26억 달러	○ 증권투자: 20억 달러

① 35억 달러 흑자 ② 40억 달러 흑자 ③ 60억 달러 흑자
④ 61억 달러 흑자 ⑤ 81억 달러 흑자

110. A국과 B국은 상호 무역에 대해 각각 관세와 무관세로 대응할 수 있다. 다음은 양국이 동시에 전략을 선택할 경우의 보수행렬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본 게임은 1회만 행해지고 괄호 안의 왼쪽 값은 A국의 보수, 오른쪽 값은 B국의 보수를 나타낸다.)

(단위: 억 원)

		B국	
A국		무관세	관 세
	무관세	(300, 250)	(400, 100)
	관 세	(150, 300)	(200, 200)

① A국의 우월전략은 관세이다.
② B국의 우월전략은 무관세이다.
③ 내쉬균형의 보수조합은 (300, 250)이다.
④ 내쉬균형은 파레토 효율적(Pareto efficient)이다.
⑤ 우월전략균형이 내쉬균형이다.

111. 사적 재화인 X재 시장의 수요자는 A와 B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화 X에 대한 A의 수요함수는 $q_A = 10 - 2P$, B의 수요함수는 $q_B = 15 - 3P$ 일 때, X재의 시장수요함수는? (단, q_A는 A의 수요량, q_B는 B의 수요량, Q는 시장수요량, P는 가격이다.)

① $Q = 10 - 2P$ ② $Q = 10 - 3P$ ③ $Q = 15 - 2P$ ④ $Q = 15 - 3P$ ⑤ $Q = 25 - 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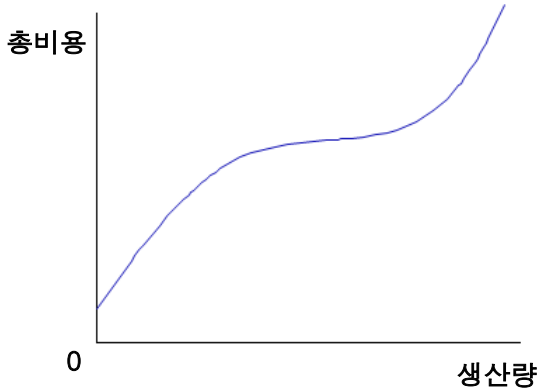
112. 정상재인 커피의 수요곡선을 좌측으로 이동(shift)시키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① 커피의 가격이 하락한다.
②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한다.
③ 소비자의 커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다.
④ 대체재인 홍차의 가격이 상승한다.
⑤ 보완재인 설탕의 가격이 상승한다.

113. 재화 X의 공급함수가 $Q=10P-4$이다. $P=2$일 때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단, Q는 공급량, P는 가격이다.)

① 0.5 ② 0.75 ③ 1 ④ 1.25 ⑤ 2.5

114. A기업의 총비용곡선이 아래와 같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평균비용곡선은 평균가변비용곡선의 위에 위치한다.

② 평균비용곡선이 상승할 때 한계비용곡선은 평균비용곡선 아래에 있다.

③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총비용곡선과 접하는 점에서 평균비용은 최소이다.

④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총가변비용곡선과 접하는 점에서 평균가변비용은 최소이다.

⑤ 총비용곡선의 임의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는 그 점에서의 한계비용을 나타낸다.

115. 외부효과(externalit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ㄱ. 생산 측면에서 부(-)의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시장 균형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적다.
ㄴ. 외부효과는 보조금 혹은 조세 등을 통해 내부화시킬 수 있다.
ㄷ. 거래비용 없이 협상할 수 있다면,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외부효과로 인한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16. 정부가 제품 1개당 10만큼의 종량세를 부과할 때 나타나는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① 공급자에게 종량세를 부과하면 균형가격은 상승한다.

② 수요자에게 종량세를 부과하면 균형가격은 하락한다.

③ 종량세를 공급자에게 부과하든 수요자에게 부과하든 정부의 조세수입은 같다.

④ 종량세를 공급자에게 부과하든 수요자에게 부과하든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은 같다.

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공급의 가격탄력성보다 클 경우 공급자보다 수요자의 조세부담이 크다.

117. 재화 X와 Y만을 소비하는 A의 무차별곡선과 예산제약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하며, MU_X는 X재의 한계효용, P_X는 X재의 가격, MU_Y는 Y재의 한계효용, P_Y는 Y재의 가격이다.)

① 무차별곡선의 기울기는 한계대체율이다.

② $\frac{MU_Y}{MU_X} > \frac{P_Y}{P_X}$ 인 경우에 Y재의 소비를 줄이고 X재의 소비를 늘려야 효용이 증가할 수 있다.

③ 예산제약선의 기울기는 두 재화 가격의 비율이다.

④ 효용극대화는 무차별곡선과 예산제약선의 접점에서 이루어진다.

⑤ 한계대체율은 두 재화의 한계효용 비율이다.

118.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독점기업의 생산 활동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근거로 옳은 것은?

①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이다.

② 생산에 있어서 과다한 자원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③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하기 때문이다.

④ 평균비용과 가격이 일치하는 점에서 생산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⑤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생산하지 않기 때문이다.

119.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소비자 A는 정상재인 X재와 Y재만을 소비한다. X재 가격이 하락하면, (ㄱ)로 인해 X재와 Y재의 소비는 증가한다. 동시에 (ㄴ)로 인해 상대적으로 싸진 X재의 소비는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비싸진 Y재의 소비는 감소한다. 단, 소비자 A의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

① ㄱ: 소득효과, ㄴ: 대체효과
② ㄱ: 소득효과, ㄴ: 가격효과
③ ㄱ: 대체효과, ㄴ: 소득효과
④ ㄱ: 대체효과, ㄴ: 가격효과
⑤ ㄱ: 가격효과, ㄴ: 대체효과

120. 소득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지니계수의 값이 클수록, 더욱 평등한 분배상태이다.
> ㄴ. 교차하지 않는 두 로렌츠곡선 중, 대각선에 더 가까이 위치한 것이 더 평등한 분배상태를 나타낸다.
> ㄷ. 지니계수의 값이 커질수록, 십분위분배율은 작아진다.
> ㄹ. 로렌츠곡선이 대각선과 일치할 때, 지니계수는 1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1. 효율임금(efficiency wage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구조적 실업의 한 원인이다. ㄴ. 노동자의 태업을 줄일 수 있다. ㄷ. 노동자의 이직을 줄일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22. 현재 생산량 수준에서 자본과 노동의 한계생산물이 각각 5와 8이고, 자본과 노동의 가격이 각각 12와 25이다.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의사결정으로 옳은 것은? (단, 한계생산물체감의 법칙이 성립한다.)

① 노동 투입량을 증가시키고 자본 투입량을 감소시킨다.

② 노동 투입량을 감소시키고 자본 투입량을 증가시킨다.

③ 두 요소의 투입량을 모두 감소시킨다.

④ 두 요소의 투입량을 모두 증가시킨다.

⑤ 두 요소의 투입량을 모두 변화시키지 않는다.

123.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완전경쟁시장에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은 생산물시장에서 제품가격이 (ㄱ)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생산량을 결정한다. 동시에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ㄴ)와(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노동수요를 결정한다.

① ㄱ: 한계비용, ㄴ: 한계생산가치 ② ㄱ: 한계비용, ㄴ: 평균생산가치

③ ㄱ: 한계수입, ㄴ: 한계생산가치 ④ ㄱ: 한계수입, ㄴ: 평균생산가치

⑤ ㄱ: 한계수입, ㄴ: 한계비용

124. 노동시장에서 노동수요곡선은 $L_D = 1{,}000 - W$이고, 노동공급곡선은 $L_S = -100 + W$이다. 이때 균형임금(W^*)과 균형노동량(L^*)은? (단, L_D는 노동수요량, L_S는 노동공급량, W는 노동 1단위당 임금이다.)

① W^*: 550, L^*: 450 ② W^*: 450, L^*: 550 ③ W^*: 400, L^*: 600

④ W^*: 350, L^*: 650 ⑤ W^*: 300, L^*: 700

125. A국에서 실업률이 6%일 때 실업자가 60만 명이라면, 취업자 수는 얼마인가?

① 60만 명 ② 940만 명 ③ 1,000만 명 ④ 1,060만 명 ⑤ 1,100만 명